

## 제1장 연혁

한강 하류 남쪽에 위치한 현재 부천시(富川市)의 연혁을 정리하려면 한강유역의 역사와 연계하면서 각 시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부천(富川)이라는 지명은 1914년 3월 1일 부평군과 인천부의 일부를 통합할 때, 부평의 부(富)와 인천의 천(川)을 조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행정구역 명칭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지명에 따라서 현재 부천시의 연혁을 조사한다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게 되지만, 부천이라는 지명의 명칭을 얻기 이전 현재 부천시 영역을 대상으로 그 연혁을 살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천의 역사가 바로 이 지역을 무대로 하여 예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명의 명칭이 일제강점기에 얻어졌다고 하여 부천 역사의 기원을 여기서부터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천시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포함하였던 선사시대의 유적과 역사시대 행정구역의 연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고고학 발굴로 부천지역은 고대시기부터 삶의 터전이었음이 확인되었다.<sup>1)</sup>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부평도호부의 영역이 대체로 삼한시기에는 마한(馬韓)의 54국 중 우휴모탁국(優休牟絜國) 영역에 속하였다고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한다.

삼국시기에는 처음 백제의 영역에 속하였다가 한강유역이 고구려로 편입되었을 때 고구려 영역에 속하여 주부토군(主夫吐郡)에 편성되었다. 이어 한강유역이 신라의 영토로 흡수되면서 이 지역은 장제군(長堤郡)으로 변경되었다. 아마도 한강 하류에 속하는 이 지역의 형세를 반영한 지역명으로서 장제군의 명칭을 얻은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긴 제방을 상징하는 지방

1) 배기동 외, 1996·1998·1999·2000,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1·2·3·4차 발굴조사보고서』, 부천시·한양대박물관·한양대문화인류학과

군명이 쓰이게 된 것으로, 757년(신라 경덕왕 16) 지방제도를 개편하고 명칭을 한자를 빌려 쓰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얻은 명칭이다.

고려시기에 오면서 995년(성종 14) 관내도(關內道)에 속하는 수주(樹州)의 칭호를 갖게 되었다. 이어 5도 양계의 편성이 이루어졌을 때 양광도(楊廣道)에 속하는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영역이 되었다. 1215년(고종 2)에 이르러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가 되었고, 1308년(충렬왕 34)에는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강등되어 부평부(富平府)가 되었다. 1390년(공양왕 2)에는 양광도로부터 경기도로 그 소속이 바뀌었고, 안남도호부하에서 금천(衿川)·동성(童城)·통진(通津)·공암(孔巖)·김포(金浦)·수안(守安)을 영속하였다. 부천은 금천·공암의 영역 일부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기에 이르러서는 1413년(태종 13) 군현제 정비과정에서 경기의 부평도호부로 편성되었다.<sup>2)</sup>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부평도호부 조를 보면 동으로 양천과는 12리, 서로는 대해와 10리, 남으로는 인천과 10리, 북으로는 김포와 10리 거리에 있다고 하여 지금의 부천지역을 포괄하는 원형이 이때의 군현 재편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수 429호, 인구 954구, 군정은 시위군 20·선군 128이고, 토성(土姓)은 김(金)·이(李)·유(柳)·형(邢)·손(孫)·최(崔)·진(陳) 일곱이 있으며, 내성(來姓)으로는 조(趙)·유(劉)·윤(尹) 셋이 있다. 없어진 황어향(黃魚鄉, 고려시기 향·소·부곡의 향)의 망성(亡姓)이 하나 있는데 손(孫)이다. 망래성(亡來姓)은 정(鄭)이고 속성(續姓)이 김(金)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부평도호부<sup>3)</sup>에 그 영역을 “동쪽으로 금천현(衿川縣) 경계까지 34리, 양천현(陽川縣) 경계까지 15리, 남쪽으로 안산군(安山郡) 경계까지 48리, 인천부(仁川府) 경계까지 15리, 서쪽으로 큰 바다까지 14리, 북쪽으로 김포현(金浦縣) 경계까지 17리, 통진현(通津縣) 경계까지 36리, 서울까지 55리”라는 서술로 미루어, 부천시의 영역이 바로 부평도호부 안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1505년(연산군 11)에 부(府)의 사람이 환자(宦者) 김순손(金舜孫)을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부가 혁파되었다가, 중종 초년에 다시 설치하였다. 도호부 안에 거주한 성씨를 살펴보면, 본부(本府)에는 김(金)·이(李)·유(柳)·형(邢)·손(孫)·최(崔)·조(趙)·유(劉)·윤(尹)이 아울러 다른 곳에서 이사온 것으로 표기하였고, 이어 황어향에는 손·김·정 등이 다른 곳에서 온 것으로 되어 있다.

고려 후기 이규보(李奎報)는 그의 시에서 부천에 대해 “사람이 순박하고 일이 간단한 것(風俗人淳事簡)은 비록 가상하나,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쇠잔하여 차마 볼 수 없구나”라 하였고,

2)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京畿 富平都護府;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3) 이하 내용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참고

「자오당기(自娛堂記)」에서 “궁벽하고 황폐하며 낮고 삼(濶)한 땅이다”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망해지(望海誌)」에서는, “길이 사면으로 계양 지경에 났는데, 오직 한 면만이 육지로 통하고 삼 면은 모두 물이다. 처음에 내가 조정에서 쫓겨나서 이 고을의 원이 되었을 때에, 물의 푸르고 넓은 것을 사방으로 돌아보고는 섬 가운데에 들어왔는가 의심하여 근심스러워 즐기지 않아서 문득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 2년 여름 6월에 미쳐서 성랑(省郎)으로 제수되어 장차 날을 정하여 서울에 돌아가게 되고 보니, 지난번의 푸르고 넓은 물이 모두 즐겁게 생각되었다. 이에 무릇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는 놀러 돌아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 비로소 만일사(萬日寺) 누대 위에서 바라보니, 큰 배가 물결 가운데 있는 것은 마치 오리가 헤엄치는 것 같고, 작은 배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서 머리만 조금 내놓은 것 같고, 돛단배가 가는 것은 사람이 높은 사모를 쓰고 가는 것 같았다. 여러 산과 여러 섬이 아득하게 서로 바라보고 있어서, 우뚝 내민 것도 있고 민둥한 것도 있으며, 밭을 제껴 디딘 것 같은 것도 있고, 납작 엎드린 것 같은 것도 있으며 등마루만 나온 것도 있고 상투 같이 솟은 것도 있으며, 가운데가 뚫려서 구멍 같은 것도 있고 머리가 둥그스름하여 일산 머리 같은 것도 있었다. 절 중이 와서 조망(眺望)을 돕는데, 문득 손가락으로 가리켜, ‘섬을 저것은 자연도(紫燕島), 저것은 고란도(高鸞島)·기린도(麒麟島)이며, 산을 저것은 서울의 곡령(鵲嶺), 저것은 승천부(昇天府)의 진산(鎭山)이며 용산(龍山)이다’ 하였다. 인주(仁州, 현재 인천)의 바라보는 것이나 통진(通津)의 바라보는 것을 역력히 세어서 마치 손바닥을 지적하는 것과 같았다. 이 날에 내가 대단히 즐거워서 노는 자와 더불어 술을 잔질하여 취하여 돌아왔다. 며칠 뒤에 명월사(明月寺)에서 노는데, 산의 가린 것이 더러 있어서 만일사같이 특 트이지는 못하였다. 두어 날 뒤에 다시 산을 따라 북쪽으로 가고, 바다와 나란히 동쪽으로 가서 조수의 격동하고 부딪치는 것과, 해시(海市, 신기루)의 변화하고 괴이한 것을 구경하기를 혹 말도 타고, 혹 걷기도 하여 조금 피곤한 뒤에 돌아왔다. 함께 논 사람은 아무 아무인데 모두 술병을 가지고 따랐다. 아, 물도 지난번의 물이요 마음도 지난번의 마음인데, 지난번에 보기 싫던 물을 지금은 도리어 즐겨 구경하니, 혹시 구구한 한 벼슬을 얻었기 때문인가. 맘은 내 맘이로되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여, 때에 따라 바뀌기를 이와 같이 하게 되니 죽고 사는 것을 한결같이 하고 얻고 잃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을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뒷날을 오히려 경계할 수 있으므로 기록하여 둔다” 하였다.

부천의 산천을 살펴보면, 우선 계양산이 있는데 부의 북부 2리 되는 곳에 있는 진산(鎭山)으로 일명 안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한다. 계양산의 사찰로는 만일사·봉일사(奉日寺)가 있다. 계양산의 동남쪽에는 돌로 쌓은 고성(古城)이 있었는데 그 돌레가 1937척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부의 서쪽 15리 되는 곳에는 원적산(元積山)·축곶산(軸串山)이 있으며, 축

곳산에는 축곶산 봉수(紐串山烽燧)가 있다. 한편 남쪽으로 인천부 성산(城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김포현(金浦縣) 백석산(白石山)에 응한다.

부 동쪽으로 10리 되는 곳에는 직포(直浦)가 있다. 그 근원이 적유산(狄踰山)에서 나와서 동으로 흘러, 양천현(陽川縣)의 북포(北浦)로 들어간다. 대교천(大橋川)은 부의 동쪽 7리 되는 곳에 있는데, 근원이 원적산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흘러 직포가 되고, 김포현(金浦縣)을 지나 굴포(堀浦)가 되어 제법진(濟法津)으로 들어간다. 유순정(柳順汀)의 묘(墓)가 부 동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부의 서쪽은 사직단이 있으며, 바다와 인접해 있기에 섬들이 많다. 서쪽으로 물차도(勿次島)·호도(虎島)·응도(鷹島)·정자도(亭子島)·문지도(文知島)·청라도(靑羅島)·일도(一島)·장도(獐島)·율도(栗島)·서천도(西遷島)·기도(箕島)가 있다. 바다와 인접하여 있기에 예로부터 부평은 토산이 풍부하였다. 부평의 주요 토산을 살펴보면, 소금(鹽)·석수어(石首魚)·토화(土花)·석화(石花)·어포(魚疋, 부레)·낙지(絡繹)·죽합(竹蛤)·소라(小螺)·청게[靑蟹]·게[蟹]·자하(紫蝦)·중하(中蝦) 등이 유명하다. 바다와 인접한 지역적 성격이 물산에도 잘 드러나 있다.

부의 북쪽을 살펴보면, 북쪽 2리 되는 곳에 향교(鄉校)와 성황사(城隍祠)가 있고 북쪽 방면에 여단(顴壇)이 있다. 부에서 북쪽 10리에 구슬원(球瑟院)이, 13리 되는 곳에 금륜역(金輪驛)이 있다.

마지막으로 남쪽을 보면, 부 남쪽 15리 되는 곳에 대야원(大也院)이 있다. 이 밖에 부 남쪽 3리 되는 곳에는 전지지(全之池)가 있다.

부평지역의 인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양관기(桂陽管記)』에 의하면 고려시기 인물로 윤관(尹瓘)·허홍재(許洪材)·이인손(李仁孫)·이인로(李仁老) 등을 찾을 수 있다. 이 밖에 이규보가 좌사간(左司諫)으로부터 나와서 계양부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기에는 권천(權踐)·목진공(睦進恭)·이사관(李士寬)·김연지(金連枝) 등이 부사로 재직하였다.

이밖에 부천 출신의 유명인물을 살펴보면, 고려시기의 경우 윤징고(尹徵古)·손변(孫漣)·이위(李瑋)가 있다. 윤징고는 성종(成宗) 말년에 과거에 올라 감찰어사(監察御史)를 지내고, 현종(顯宗) 때에 내사사인(內史舍人)을 제수하였다. 해서(楷書)를 잘 쓰고 가는 곳마다 재결(裁決)하는 것이 공평하며 적당하여,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랑하였다. 추충좌리공신(推忠佐理功臣)에 봉하여졌고,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장경(莊景)이라 하였다. 손변은 과거에 급제하여 고종(高宗) 때에는 벼슬이 추밀원부사 수사공 상서좌복야(樞密院副使守司空尙書左僕射)에 이르렀다. 성품이 강하고 굳세며 행정의 실무에 능숙하여, 재결하는 것이 물 흐르는 것 같아서 이르는 곳마다 명성이 있었다. 이위는 문과에



부평부읍지 의 부평지도 (규장각 소장)

급제하여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郎)이 되었고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쳤는데, 성격이 청렴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났다. 뒤에 좌리공신(佐理功臣)이 되고 계양군개국백(桂陽君開國伯)으로 봉해져 식읍(食邑)이 2000호, 식실봉(食實封) 300호에 이르렀다. 나이 85세에 죽었는데 시호는 장숙(莊肅)이다.

한편, 『증보문헌비고(曾補文獻備考)』에 의하면 부천은 1698년(숙종 24)에 장릉(章陵)에 불을 놓은 죄인이 태어난 곳이라는 이유로 현으로 강등되었으나, 그다음 해에 다시 승격되었고 1895년(고종 32)에는 군(郡)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부천지역은 동면(東面)과 서면(西面) 방면으로는 읍치로부터 면 경계의 끝이 각각 7리에 다다른다. 주화곶면(注火串面)은 동쪽으로 처음이 7리, 끝이 15리이고 상오정면(上梧井面)은 동쪽으로 처음이 7리, 끝이 15리이며 하오정면(下梧井面)은 동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15리이다. 당산면(堂山面)은 동쪽으로 처음이 7리, 끝이 15리이고 옥모면(玉毛面)과 수탄면(水呑面)은 동쪽으로 처음이 15리, 끝이 30리이다. 동소정면(同所井面)은 남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이고 마장면(馬場面)은 남쪽으로 처음이 5리, 끝이 10리이며 석천면(石川面)은 남쪽으로 처음이 5리, 끝이 15리이다. 석곶면(石串面)은 서쪽으로 처음이 7리, 끝이 15리이고 모월곶면(毛月串面)은 서쪽으로 처음이 5리, 끝이 15리이다. 황어면(黃魚面)은 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15리인데, 옛날 전어[黃魚]의 산지였다. 소래면(蘇來面)은 남쪽으로 20리이다.

1895년(고종 32) 5월 26일 칙령 제101호 개정 공포에 따라 전국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로 나누고 부·목·군·현을 폐합하여 336군으로 개편할 때, 인천부에는 인천·김포·부평·양천·시흥·안산·과천·수원·남양·강화·교동·통진이 소속되었다. 이후 1896년 8월 4일 부제를 폐지하고 행정개편을 하면서 다시 경기도 부평군이 되었고, 1899년 9월 18일 인천과 노량진 간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 소사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관제>의 공포와 동시에 <조선총독부지방관제>가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14년 3월과 4월에 부·군·면의 폐합이 이루어졌고, 1914년 3월 1일 부평군의 일원이던 6개 면 30개 리와 인천부의 일부, 남양군의 2개 면을 통합하여 부천군이 만들어졌다. 1912년 5월 25일 발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 의하면 부평군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sup>4)</sup>

4) 조선총독부, 1912,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대화상회

부평군(富平郡, 면수 15 · 동리수 84)

- 군내면(郡內面) 상동(上洞) · 하동(下洞)
- 동면(東面) 임학동(林鶴洞) · 용종리(龍宗里) · 병방리(兵房里) · 박촌리(朴村里) · 방축리(防築里)
- 당산면(堂山面) 동양리(東陽里) · 굴현리(掘峴里) · 상야리(上野里) · 하야리(下野里) · 평리(坪里)
- 주화곶면(注火串面) 내촌(內村) · 오쇠리(五釧里) · 오곡리(五谷里) · 대장리(大壯里)
- 상오정면(上吾丁面) 오정리(吾丁里) · 내촌(內村) · 도당리(陶唐里) · 삼정리(三井里) · 약대리(若大里)
- 하오정면(下吾丁面) 원종리(遠宗里) · 작동(鵲洞) · 여월리(如月里) · 고리동(古里洞)
- 수탄면(水呑面) 천왕리(天旺里) · 고척리(高尺里) · 개봉리(開峯里) · 오류동(梧柳洞) · 궁리(宮里) · 온수동(溫水洞)
- 옥산면(玉山面) 범박동(範朴洞) · 항동(航洞) · 소사리(素砂里) · 괴안리(槐安里) · 벌응절리(伐應節里) · 조종리(朝宗里) · 표절리(表節里)
- 석천면(石川面) 상리(上里) · 구지리(九芝里) · 중리(中里) · 심곡리(深谷里)
- 동소정면(同所井面) 대정리(大井里) · 마분리(馬墳里) · 항동(航洞) · 구산리(九山里)
- 서면(西面) 가현리(佳峴里) · 신대리(新垓里) · 화전리(化田里) · 갈월리(葛月里) · 후정리(後井里) · 도두리(道頭里) · 작정리(鵲井里)
- 마장면(馬場面) 효성리(曉星里) · 청천리(淸川里) · 산곡리(山谷里)
- 석곶면(石串面) 가좌동(佳佐洞) · 번작리(番作里) · 고잔리(高棧里) · 포리(浦里) · 가정리(佳丁里) · 울도(栗島) · 신현리(新峴里)
- 모월곶면(毛月串面) 공촌리(公村里) · 심곡리(深谷里) · 연희리(連喜里) · 고잔리(高棧里) · 검암리(黔岩里) · 시천리(始川里) · 백석리(白石里) · 난지도(蘭芝島) · 청라도(菁蘿島) · 세어도(細於島) · 장구도(長口島) · 안도(雁島)
- 황어면(黃魚面) 독실리(蠶室里) · 목상리(木霜里) · 역동(驛洞) · 갈산리(葛山里) · 오류동(梧柳洞) · 이화촌(梨花村) · 노오지리(老吾之里) · 선주지리(仙舟之里) · 장기리(場基里)

1914년 3월 부·군·면 통폐합 때 부천군으로 명명되어 다시 영역 변동이 있었다. 1917년에 간행된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 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 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부천군(富川郡, 면수 15 · 동리수 160)

다주면(多朱面)

- 사충리(士忠里) 인천부(仁川府) 다문면(多門面) 충훈리(忠勳里) · 사미리(士美里)  
 도화리(道禾里) 인천부(仁川府) 다문면(多門面) 도마리(道馬里) · 화동(禾洞)  
 장의리(長意里) 인천부(仁川府) 다문면(多門面) 장천리(長川里) · 여의리(如意里) · 독각리(獨脚里)  
 용정리(龍亭里) 인천부(仁川府) 다문면(多門面) 비룡리(飛龍里) · 독정리(讀亭里)  
 구월리(九月里) 인천부(仁川府) 주안면(朱安面) 구월리(九月里) · 성리(城里) · 전재리(全材里 혹은 全在里)  
 간석리(間石里) 인천부(仁川府) 주안면(朱安面) 간촌리(間村里) · 석암리(石岩里) · 하십정리(下十井里) 일부  
 십정리(十井里) 인천부(仁川府) 주안면(朱安面) 하십정리(下十井里) 일부 · 상십정리(上十井里)

문학면(文鶴面)

- 학익리(鶴翼里) 인천부(仁川府) 구읍면(舊邑面) 학익동(鶴翼洞)  
 승기리(承基里) 인천부(仁川府) 구읍면(舊邑面) 소승기리(小承基里) · 대승기리(大承基里)  
 관교리(官校里) 인천부(仁川府) 구읍면(舊邑面) 향교리(鄉校里) · 관청리(官廳里)  
 도장리(道章里) 인천부(仁川府) 구읍면(舊邑面) 도장리(道章里) · 학산리(鶴山里) 일부  
 문학리(文鶴里) 인천부(仁川府) 구읍면(舊邑面) 산성리(山城里) · 학산리(鶴山里) 일부  
 연수리(延壽里) 인천부(仁川府) 서면(西面) 1리(一里)  
 청학리(靑鶴里) 인천부(仁川府) 서면(西面) 2리(二里)  
 동춘리(東春里) 인천부(仁川府) 서면(西面) 3리(三里) · 4리(四里)  
 옥연리(玉蓮里) 인천부(仁川府) 서면(西面) 5리(五里)

소래면(蘇萊面)

- 대야리(大也里) 인천부(仁川府) 신현면(新峴面) 대야동(大也洞)  
 은행리(銀杏里) 인천부(仁川府) 신현면(新峴面) 3리(三里)  
 신천리(新川里) 인천부(仁川府) 신현면(新峴面) 사천리(蛇川里) · 신촌리(新村里)

5)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미산리(米山里)	인천부(仁川府) 신현면(新峴面) 창동(倉洞) · 고기리(古基里) 2리(二里)
방산리(芳山里)	인천부(仁川府) 신현면(新峴面) 죽원(竹院) · 산정리(山井里) · 방곡리(芳谷里)
포리(浦里)	인천부(仁川府) 신현면(新峴面) 국동(局洞) · 포동(浦洞)
안현리(鞍峴里)	인천부(仁川府) 전반면(田反面) 1리 양지리(一里陽支里) · 1리 가대동(一里家垵洞) · 1리 송내동(一里松內洞) · 2리 장악동(二里長樂洞)
매화리(梅花里)	인천부(仁川府) 전반면(田反面) 2리 매저리(二里梅著里) · 2리 율동(二里栗洞)
도창리(道倉里)	인천부(仁川府) 전반면(田反面) 3리 도두리(三里道頭里) · 3리 강창리(三里江倉里)
금이리(錦李里)	인천부(仁川府) 전반면(田反面) 4리(四里) · 5리 검의리(五里儉義里) · 6리(六里)
무지리(茂芝里)	인천부(仁川府) 전반면(田反面) 7리 능내동(七里陵內洞) · 7리 중동(七里中洞) · 7리 신흥동(七里新興洞) · 7리 은행동(七里銀杏洞)
과림리(果林里)	인천부(仁川府) 황등천면(黃等川面) 1리(一里) · 2리(二里) · 3리(三里) 일부
옥길리(玉吉里)	인천부(仁川府) 3리(三里) 일부 · 4리(四里)
계수리(桂壽里)	인천부(仁川府) 5리(五里) · 6리(六里) · 7리(七里)
남동면(南洞面)	
논현리(論峴里)	인천부(仁川府) 남촌면(南村面) 논현동(論峴洞)
고잔리(古棧里)	인천부(仁川府) 남촌면(南村面) 고잔동(古棧洞)
와우리(臥牛里)	인천부(仁川府) 남촌면(南村面) 와우동(臥牛洞) 1리(一里)
도산리(桃山里)	인천부(仁川府) 남촌면(南村面) 2리(二里) · 도리(桃里) 일부
발산리(鉢山里)	인천부(仁川府) 남촌면(南村面) 도리(桃里) 일부 · 4리(四里) · 경신리(慶信里)
장수리(長壽里)	인천부(仁川府) 도동면(島洞面) 수현리(水峴里) · 장자리(壯者里) · 만선리(晩宣里)
운연리(雲宴里)	인천부(仁川府) 도동면(島洞面) 연악리(宴樂里) · 운곡리(雲谷里)

서창리(西昌里) 인천부(仁川府) 도동면(島洞面) 설내리(雪乃里 혹은 設乃里) · 곡촌리(谷村里)

만수리(萬壽里) 인천부(仁川府) 도동면(島洞面) 도곡리(島谷里) · 담방리(淡方里)

부내면(富內面)

부평리(富平里) 부평군(富平郡) 군내면(郡內面) 상동(上洞)  
 하리(下里) 부평군(富平郡) 군내면(郡內面) 하동(下洞)  
 가현리(佳峴里) 부평군(富平郡) 서면(西面) 가현리(佳峴里)  
 신대리(新垈里) 부평군(富平郡) 서면(西面) 신대리(新垈里)  
 화전리(化田里) 부평군(富平郡) 서면(西面) 화전리(化田里)  
 작천리(鵲川里) 부평군(富平郡) 서면(西面) 작천리(鵲川里)  
 도두리(道頭里) 부평군(富平郡) 서면(西面) 도두리(道頭里)  
 후정리(後井里) 부평군(富平郡) 서면(西面) 후정리(後井里)  
 갈월리(葛月里) 부평군(富平郡) 서면(西面) 갈월리(葛月里)  
 효성리(曉星里) 부평군(富平郡) 마장면(馬場面) 효성리(曉星里)  
 청천리(淸川里) 부평군(富平郡) 마장면(馬場面) 청천리(淸川里)  
 산곡리(山谷里) 부평군(富平郡) 마장면(馬場面) 산곡리(山谷里) 일부  
 마분리(馬墳里) 부평군(富平郡) 동소정면(同所井面) 마분리(馬墳里)  
 대정리(大井里) 부평군(富平郡) 동소정면(同所井面) 대정리(大井里)  
 항동리(航洞里) 부평군(富平郡) 동소정면(同所井面) 항동(航洞)  
 구산리(九山里) 부평군(富平郡) 동소정면(同所井面) 구산리(九山里)

계양면(桂陽面)

박촌리(朴村里) 부평군(富平郡) 동면(東面) 박촌리(朴村里)  
 병방리(兵房里) 부평군(富平郡) 동면(東面) 병방리(兵房里)  
 용종리(龍宗里) 부평군(富平郡) 동면(東面) 용종리(龍宗里)  
 방축리(坊築里) 부평군(富平郡) 동면(東面) 방축리(坊築里)  
 임학리(林鶴里) 부평군(富平郡) 동면(東面) 임학동(林鶴洞)  
 동양리(東陽里) 부평군(富平郡) 당산면(堂山面) 동양리(東陽里)  
 굴현리(掘峴里) 부평군(富平郡) 당산면(堂山面) 굴현리(掘峴里 혹은 橋峴里) · 황어면(黃魚面) 노오지리(老吾之里 혹은 老吾池里) 일부  
 상야리(上野里) 부평군(富平郡) 당산면(堂山面) 상야리(上野里) 일부

하야리(下野里)	부평군(富平郡) 당산면(堂山面) 하야리(下野里)
평리(坪里)	부평군(富平郡) 당산면(堂山面) 평리(坪里) · 하야리(上野里) 일부
노오지리(老吾池里)	부평군(富平郡) 황어면(黃魚面) 노오지리(老吾之里 혹은 老吾池里) 일부
선주지리(仙住地里)	부평군(富平郡) 황어면(黃魚面) 선주지리(仙舟之里 혹은 仙住地里)
장기리(場基里)	부평군(富平郡) 황어면(黃魚面) 장기리(場基里)
이화리(梨花里)	부평군(富平郡) 황어면(黃魚面) 이화촌(梨花村) · 김포군(金浦郡) 노장면(蘆長面) 당하리(堂下里) 일부
오류리(梧柳里)	부평군(富平郡) 황어면(黃魚面) 오류동(梧柳洞) · 김포군(金浦郡) 노장면(蘆長面) 당하리(堂下里) 일부
갈산리(葛山里)	부평군(富平郡) 황어면(黃魚面) 갈산리(葛山里) · 김포군(金浦郡) 노장면(蘆長面) 당하리(堂下里) 일부
다남리(多男里)	부평군(富平郡) 황어면(黃魚面) 역동(驛洞)
목상리(木霜里)	부평군(富平郡) 황어면(黃魚面) 목상리(木霜里)
독실리(蠶室里)	부평군(富平郡) 황어면(黃魚面) 독실리(蠶室里)
오정면(吾丁面)	
오쇠리(五釧里)	부평군(富平郡) 주화곶면(注火串面) 오쇠리(五釧里)
오곡리(五谷里)	부평군(富平郡) 주화곶면(注火串面) 오곡리(五谷里) 내촌(內村)
대장리(大壯里)	부평군(富平郡) 주화곶면(注火串面) 대장리(大壯里)
도당리(陶唐里)	부평군(富平郡) 상오정면(上吾丁面) 도당리(陶唐里)
약대리(若大里)	부평군(富平郡) 상오정면(上吾丁面) 약대리(若大里)
삼정리(三井里)	부평군(富平郡) 상오정면(上吾丁面) 삼정리(三井里)
내리(內里)	부평군(富平郡) 상오정면(上吾丁面) 내촌(內村)
오정리(吾丁里)	부평군(富平郡) 상오정면(上吾丁面) 오정리(吾丁里)
원종리(遠宗里)	부평군(富平郡) 하오정면(下吾丁面) 원종리(遠宗里)
고강리(古康里)	부평군(富平郡) 하오정면(下吾丁面) 고리동(古里洞)
작리(鵲里)	부평군(富平郡) 하오정면(下吾丁面) 작동(鵲洞)
여월리(如月里)	부평군(富平郡) 하오정면(下吾丁面) 여월리(如月里)

계남면(桂南面)

- 고척리(高尺里) 부평군(富平郡) 수탄면(水呑面) 고척리(高尺里)
- 개봉리(開峰里) 부평군(富平郡) 수탄면(水呑面) 개봉리(開峰里)
- 오류리(梧柳里) 부평군(富平郡) 수탄면(水呑面) 오류동(梧柳洞)
- 궁리(宮里) 부평군(富平郡) 수곡면(水谷面) 궁리(宮里)
- 온수리(溫水里) 부평군(富平郡) 수곡면(水谷面) 온수동(溫水洞)
- 천왕리(天旺里) 부평군(富平郡) 수곡면(水谷面) 천왕리(天旺里)
- 표절리(表節里) 부평군(富平郡) 옥산면(玉山面) 표절리(表節里)
- 조종리(朝宗里) 부평군(富平郡) 옥산면(玉山面) 조종리(朝宗里)
- 벌응절리(伐應節里) 부평군(富平郡) 옥산면(玉山面) 벌응절리(伐應節里)
- 항리(航里) 부평군(富平郡) 옥산면(玉山面) 항동(航洞)
- 괴안리(槐安里) 부평군(富平郡) 옥산면(玉山面) 괴안리(槐安里)
- 소사리(素砂里) 부평군(富平郡) 옥산면(玉山面) 소사리(素砂里)
- 범박리(範朴里) 부평군(富平郡) 옥산면(玉山面) 범박동(範朴洞)
- 구지리(九芝里) 부평군(富平郡) 석천면(石川面) 구지리(九芝里)
- 상리(上里) 부평군(富平郡) 석천면(石川面) 상리(上里)
- 중리(中里) 부평군(富平郡) 석천면(石川面) 중리(中里)
- 심곡리(深谷里) 부평군(富平郡) 석천면(石川面) 심곡리(深谷里)

서곶면(西串面)

- 가정리(佳亭里) 부평군(富平郡) 모월곶면(毛月串面) 가정리(佳丁里) 혹은 佳亭里)
- 신현리(新峴里)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 신현리(新峴里)
- 포리(浦里)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 포리(浦里)－웅치도(雄雉島)·자치도(雌雉島)·황산도(黃山島), 울도(栗島)－울도(栗島)·목도(木島)·육도(陸島), 세어도(細於島)－대문지도(大文之島)·소문지도(小文之島)
- 고작리(高作里)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 번작리(番作里)·고잔리(高棧里)
- 고잔리(高棧里)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 고잔리(高棧里)－사도(巳島)·급도(吸島), 난지도(蘭芝島), 청라도(菁蘿島)－청라도(菁蘿島)·영관도(影冠島)·일도(一島)·장도(獐島)
- 가좌리(佳佐里)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 가좌동(佳佐洞)·마장면(馬場面) 산곡리(山谷里) 일부
- 백석리(白石里)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 백석리(白石里)

검암리(黔岩里)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 검암리(黔岩里)  
 시천리(始川里)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 시천리(始川里)  
 공촌리(公村里)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 공촌리(公村里)  
 연희리(連喜里)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 연희리(連喜里)  
 심곡리(深谷里)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 심곡리(深谷里)

#### 북도면(北島面)

장봉리(長峯里) 강화군(江華郡) 북도면(北島面) 장봉도(長蜂島)  
 신도리(信島里) 강화군(江華郡) 북도면(北島面) 신도(信島)  
 모도리(茅島里) 강화군(江華郡) 북도면(北島面) 모도(茅島)  
 시도리(矢島里) 강화군(江華郡) 북도면(北島面) 시도(矢島)

#### 대부면(大阜面)

선감리(仙甘里) 남양군(南陽郡) 대부면(大阜面) 선감동(仙甘洞)-선감도(仙甘島)·탄도(炭島)  
 풍도리(豊島里) 남양군(南陽郡) 대부면(大阜面) 풍도(豊島) 일원  
 동리(東里) 남양군(南陽郡) 대부면(大阜面) 영전동(營田洞)-반도(半島)·외지도(外池島), 하동(下洞) 일부  
 남리(南里) 남양군(南陽郡) 대부면(大阜面) 용곶동(龍串洞)-불도(佛島)·귀도(机島)·표단도(瓢箪島), 상동(上洞) 일부  
 북리(北里) 남양군(南陽郡) 대부면(大阜面) 진현동(鎭懸洞)-춘두포(春頭浦)·구봉리(九峰里), 상동(上洞), 하동(下洞) 각 일부

#### 영흥면(靈興面)

선재리(仙才里) 남양군(南陽郡) 영흥면(靈興面) 선재리(仙才里)-선재도(仙才島)·안도(鞍島)·호도(湖島)·측도(側島)·주도(周島)  
 내리(內里) 남양군(南陽郡) 영흥면(靈興面) 내리(內里)-촉변도(觸辨島)·안도(鞍島)·삼석도(三石島)·부당촉(不當觸)  
 외리(外里) 남양군(南陽郡) 영흥면(靈興面) 외리(外里)-용족도(用足島)·판어평(判漁坪)·세염도(貰炎島)  
 자월리(紫月里) 남양군(南陽郡) 영흥면(靈興面) 자월리(紫月里)-소물도(小勿島)·노차

도(老此島)

대이작리(大伊作里) 남양군(南陽郡) 영흥면(靈興面) 대이작리(大伊作里)-대이작도(大伊作島)

소이작리(小伊作里) 남양군(南陽郡) 영흥면(靈興面) 소이작리(小伊作里)-소이작도(小伊作島) · 대도(代島) · 장고도(長鼓島) · 창도(倉島)

영종면(永宗面)

운남리(雲南里) 인천부(仁川府) 영종면(永宗面) 전소리(前所里) · 후소리(後所里) · 송산리(宋山里) · 외중촌리(外中村里) 각 일부

영북리(靈北里) 인천부(仁川府) 영종면(永宗面) 북촌리(北村里) · 예호리(禮湖里) · 후소리(後所里) 일부,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 장구도(長丘島)-장부도(長缶島) · 호도(虎島) · 공암도(孔岩島)

중산리(中山里) 인천부(仁川府) 영종면(永宗面) 구읍리(舊邑里) · 송산리(松山里) · 외중촌리(外中村里) 각 일부,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안도(鞍島) · 소안도(小鞍島) · 거침암도(巨巒巖島)

운서리(雲西里) 인천부(仁川府) 영종면(永宗面) 삼목리(三木里)-신불도(薪佛島) · 삼목도(三木島)

용유면(龍游面)

을왕리(乙旺里)	인천부(仁川府) 용유면(龍游面) 용유리(龍游里) 일부	} 용유도(龍游島)
남북리(南北里)	인천부(仁川府) 용유면(龍游面) 용유리(龍游里) 일부	
덕교리(德橋里)	인천부(仁川府) 용유면(龍游面) 용유리(龍游里) 일부	
무의리(舞衣里)	인천부(仁川府) 용유면(龍游面) 용유리(龍游里) 일부-대무도(大舞島) · 소무도(小舞島)	

덕적면(德積面)

진리(鎭里) 인천부(仁川府) 덕적면(德積面) 진리(鎭里)

울도리(蔚島里) 인천부(仁川府) 덕적면(德積面) 울도(蔚島)

익포리(益浦里) 인천부(仁川府) 덕적면(德積面) 익포리(益浦里)

우포리(友浦里)	인천부(仁川府) 덕적면(德積面) 우포리(友浦里)
북리(北里)	인천부(仁川府) 덕적면(德積面) 북리(北里)
소야리(蘇爺里)	인천부(仁川府) 덕적면(德積面) 소야리(蘇爺里)
문갑리(文甲里)	인천부(仁川府) 덕적면(德積面) 문갑리(文甲里)
백아리(白牙里)	인천부(仁川府) 덕적면(德積面) 백아리(白牙里)
승봉리(昇鳳里)	인천부(仁川府) 덕적면(德積面) 승봉리(昇鳳里)
굴업리(屈業里)	인천부(仁川府) 덕적면(德積面) 굴업리(屈業里)

위 자료에 의하면 1914년 3월 1일 군현 폐합에 따라 인천부(仁川府)의 구읍(舊邑)·서면(西面)·남촌(南村)·조동(鳥洞)·다문(多門)·주안(朱岸)·신현(新峴)·전반(田反)·황등천(黃等川)·영종(永宗)·용유(龍游)·덕적(德積)의 12개 면과 남양군(南陽郡)의 대부(大阜)·영흥(靈興)의 2개 면과 강화군의 북도면(北島面)과 김포군 노장면(蘆長面)의 당하리(堂下里)를 병합하여 부천군(富川郡)이라 하여, 다주(多朱)·문학(文鶴)·소래(蘇萊)·남동(南洞)·부내(富內)·계양(桂陽)·오정(吾丁)·계남(桂南)·서곶(西串)·북도(北島)·대부(大阜)·영흥(靈興)·영종(永宗)·용유(龍游)·덕적(德積)의 15면 160리로 개편 관할한 것을 알 수 있다.

1931년 4월 1일에 계남면을 소사면(素砂面)으로 고치고, 1936년 10월 1일 부령 제93호에 의하여 다주면의 도화(道禾)·구월(九月)·간석(間石)·십정(十井)의 4개 리를 인천부(市)에 넘겨 주고 다주면을 폐지하였다. 1940년 4월 1일 인천부(市) 구역 확장에 따라 문학(12리)·남동(9리)·부내(16리)·서곶(12리)의 4개 면을 인천부(市)에 넘겨주어 10개 면이 되고,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하여 소사면을 읍으로 승격하였다. 1945년 11월 2일 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지방행정제도는 식민지 정책을 제외한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sup>6)</sup>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1950·196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한 대폭적인 행정구역상의 개편이 있었다. 즉,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72개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서울의 인구집중 현상과 이에 따른 각종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부천군을 비롯한 양주군·광주군·김포군·시흥군의 일부를 서울시에 흡수하여 행정구역을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1962년 부천시 행정구역의 일부가 서울시에 흡수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하여 소사읍의 고척(高尺)·개봉(開峯)·오류(梧柳)·천왕(天旺)·궁리(宮里)·항리(航里)·온수(溫水)의 7개 리와 오정면의 오곡(五谷)·오쇠(五鈞)

6) 정시제, 1985, 『한국행정제도사』, 법문사, 372~490쪽



1915년의 부천지도(서울대 구간서고 소장)

의 2개 리를 서울시에, 영종면 증산리의 작약도(炸藥島)를 인천시에 소속시켰다. 1966년 8월 24일 부천군 조례 제135·136·137호에 의하여 북도면의 장봉도와 용유면의 무의도·영흥도·자원도에 각각 출장소를 두었다.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과 서울의 팽창 속도가 멈추지 않아 다시 서울시의 관할구역이 조정되었고, 부천을 비롯한 안양·성남 등 주변 위성도시가 급성장되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하여 소래면(읍)은 시흥군에, 오정·계양 2면은 김포군에, 영종·북도·용유·덕적·영흥·대부의 6개 면은 용진군에 각각 넘겨주었다. 동시에 소사읍을 부천시로 승격하고 부천군이 폐지되었다.

같은 시기 부천시 조례 제35호 동계 실시에 의하여 심곡동을 갈라서 심곡1·2동으로, 상동·구지동을 합하여 송내동으로, 벌응절동·괴안동을 합하여 역곡동으로, 조종동·표절동





1996년의 부천시 항공 촬영 모습

을 합하여 중앙동으로, 그 나머지 소사동·범박동·중동의 3개 동은 그대로 동회로 하여 8개 동회가 되었다. 이 시기 1967년 7월 경인고속도로 개통과 1974년 경인철도 전철화는 서울과 인천 양 도시를 위성도시로 만들었다.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7호에 의하여 김포군 오정면(대장·도당·약대·삼정·내리·오정·원종·고강·작리·여월)을 편입하여 오정·대장을 합하여 오정동으로, 도당·약대·삼정·내동을 합하여 신흥동으로, 원종·고강을 합하여 성지동으로, 작동·여월을 합하여 성곡동회라 해서 모두 12개 동회가 되었다.

1982년 9월 1일 부천시 조례 제546호에 의하여 신흥동을 갈라서 신흥1·2동으로, 신흥2동을 갈라서 신흥2·3동으로, 소사동을 갈라서 소사1·2동으로, 중앙동을 갈라서 원미동·춘의동회로 고쳐서 16개 동회가 되었으며,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시흥군 소래읍의 계수리 일부와 옥길리 일부를 범박동회에 편입하여 현재 22동·16동회·270통·1953반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현재의 부천은 동쪽은 서울시, 남쪽은 시흥군과 인천시, 서쪽은 인천시, 북쪽은 김포군에 접하고 있다.

이범직 / 건국대 교수